



오전 진료가 시작되기전부터 캄파하주민 300여명이 진료소앞에서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다.



###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 스리랑카 의료봉사 현장

동국대 양·한방 의사들과 학생들이 스리랑카의 가난한 작은 마을에 자비의 인술(仁術)을 전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랑봉사단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매년 동남아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온 동국대는 스리랑카의 '캄파하', 조계종의 지원으로 건립된 '조계종 마을'이 있는 '라투나푸라' 그리고 '카루타라' 지역을 중심으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동국대 부속병원 의사, 한 의사 및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지원팀과 일반학과 학생 봉사지원팀 등 모두 27명이 참가했다.



동국대 참사랑의료봉사단은 7월15~31일 불교국가인 스리랑카로 건너가 현지주민 5000여명을 진료했다. 사진은 '라투나푸라' 사원에서 진료중인 봉사단원들.

## 국경없는 약사여래 손길 “감사 또 감사”

봉사단원 27명, 조계종 마을·캄파하·카루타라서 활동  
관절염·영양부족 등 심각, 국민 90% '병원 혜택' 못 누리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의료원 신하 양·한방의사 및 학생 27명으로 구성됐다.

스리랑카 정부의 공식초청 형태로 입국한 봉사단 일행은 공항에서부터 현지인들의 특별대우를 받았다. 봉사단은 입국심사 없이 곧바로 VIP통을 통과해 스리랑카 정부 대표인 '쿠레이' 웨스턴주 수석장관과 '라신테' 교통부 부장관의 환영을 받았다. 숙소인 '비야가마' 호텔에 가는 도중 공항 벽에는 심혈관으로 적힌 봉사단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우리 봉사단의 진료 일정과 내용을 작년 사진과 곁들여 미리 안내한 홍보 포스터라고 했다. 이미 TV와 신문을 통해 전국에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에 일행들은 적잖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동 중간에 차량으로 보이는 이국적인 풍경도 인상적이었다. 차선도 없는 도로 위를 고급 승용차와 달구지, 소 떼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이곳에서 우리는 아시아 인구 80%가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절대 빈곤의 현실을 그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봉사단이 머물렀던 비야가마 호텔의 사장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외국인인 동국대 의료봉사단이 대신 하는 것에 많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느낀다”며 현지에 머무는 동안 상당한 편의를 지원해 주었다.

#### 봉사단 방문에 현지 언론매체 대대적 보도

진료 첫날은 일본 서대사(西大寺)에서 세운 '란무투가라' 사원의 강당을 진료실 삼아 치료를 시작했다. 봉사기간 동안 우리가 대한 환자는 대부분 노인들이었고 양방환자보다는 한방 쪽에서 봐야 할 지병이 있는 환자들이 몰리는 편이었다. 스리랑카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립 병원이 있지만 치료약이 거의 없고 예약 후에도 8-10개월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하다. 물론 고급 수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항시술을 해주고 있다.

의 사립병원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 스리랑카 불교계는 소승불교의 전통 탓에 아직 의료복지문제를 해결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최근 타 종교인들이 의료봉사를 발미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였다. 봉사기간 중 7월 19일에는 진대호 단장을 포함한 일부 의료진이 '조계종마을'로 파견을 나갔다. 인근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인 이곳은 스리랑카의 대표적 빈민가로 지난해 홍수로 마을 전체가 사라져 버린 곳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조계종의 후원으로 약 200여 채의 가옥이 새로 지어져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특히 혼자 걷지 못해 얼거나 앉거나 서 오는 이들이 많았는데 오랜 기간과 극심한 노동으로 관절염 같은 퇴행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경우 영양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봉사단은 조계종 마을에서 한방진료를 중심으

로 약 90명의 환자를 돌봤다.

진대호 단장은 “불록 나온 배, 갈마른 손발은 한눈에도 기생충에 감염된 아이들의 심각한 건강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간단한 구충제 투여와 약간의 영양만 공급할 수 있어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어 보였다”고 밝혔다.

#### 약 열여러 1~2시간 기다리는 가슴아픈 현실

2차 진료지역인 카루타라로 이동하기전 봉사단은 불치사 난다 스님의 안내로 부처님의 치아 사리가 모셔진 경내를 참배했다. 봉사단은 이곳에서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실시하고 컴퓨터와 의약품 일부를 기증했다.

1차 진료지였던 캄파하 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2차 진료지 카루타라는 치료보다 약을 얻기 위해 봉사단을 찾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는 잠시 기다리는 의료진의 손길보다도 두고두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알의 알약이 더 절실하다는 사실에 의



진대호 단장(왼쪽)이 라신테 교통부 부장관에게 컴퓨터와 의약품 등을 기증하고 있다.

료진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찾아온 환자들의 40%정도는 기본적으로 관절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살갓이 새까맣게 각화된 채로 걸음조차 옮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의료봉사 기간동안 현지인들은 문화적 특성인지 그곳에 보였고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 까지 1~2시간은 묵묵히 기다리는 대단한 참을성도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니 있다가도 우리 단원과 마주칠 때면 부끄러운 듯이 미소 짓는 그들의 모습에서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 하루 600여명 진료, 호전된 모습에 피로 잊어

봉사단 의료진들은 1, 2차 진료 기간동안 하루 평균 500~600명의 환자를 진료해야 했다. 캄파하 지역에서 벌인 1차 진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하루에 720명을 진료하기도 했다.

보통 한국에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최대 50~60명 수준인데 의료봉사기간 동안 양·한방 의사 1인당 평균 1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밀려드는 환자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식사나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줄여야 할 만큼 정신없이 진료에 매달렸다”는 강남한방병원 김경옥 한의사는 “현지인들의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제로 증세가 호전된데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함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의료봉사 마지막 날인 7월 30일 오전에는 스리랑카의 '라자팍스' 총리를 예방했다. 영빈관에서 동국대 측이 기증한 '마이크로 수술기'의 간단한 시범을 보였다. 라자팍스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봉사단에 스리랑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다음날 봉사단원들은 “그동안의 5000여명 진료가 이 나라 국민들의 의료 현실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우리들의 치료가 가난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글·사진/스리랑카=김규원(동국대 학생복지실 직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취유림선으로 이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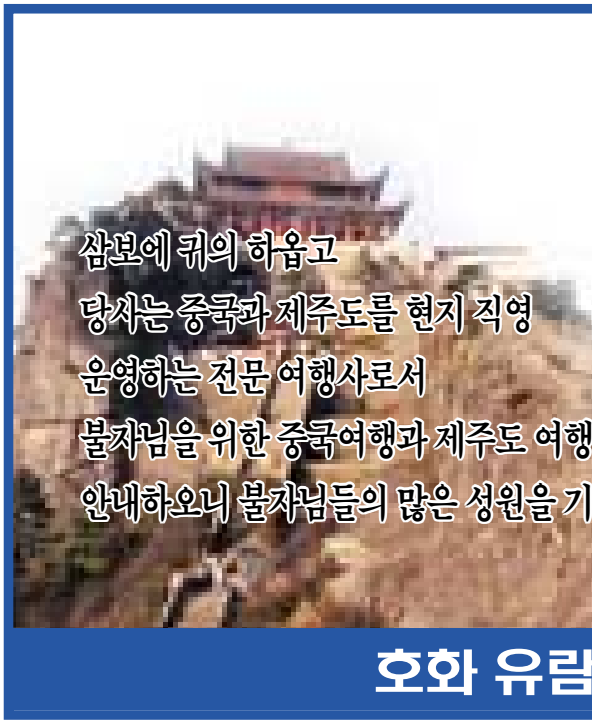
- 호취유림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 외불사, 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 백마사, 옹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 화염사, 천통사) ₩ 590,000원
- 호취유림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리궁, 보녕사) ₩ 520,000원
- 호취유림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 영암사, 잠산사) ₩ 390,000원

**(주) 행복만선 Tel. (02) 730-0705**

###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옹문석굴 5일 .....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69만원

호화 유림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